

“주인공은 민중... 의병들 보며 울컥”

‘녹두꽃’ 전봉준 역할 최무성

“역사책에서 만난 전봉준 역할 부담 컸지만 영광 코믹연기도 욕심합니다”



드라마 ‘녹두꽃’ 속 전봉준역 최무성(왼쪽)과 녹두장군 전봉준.

“국가책에서만 만나왔던 전봉준이란 인물을 표면적으로만 접근해선 안 되겠다 생각했죠. 부담도 컸습니다.”

목직한 울림을 남기고 종영한 SBS TV 금토극 ‘녹두꽃’에서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녹두장군 전봉준으로 열연한 배우 최무성(본명 최명수·51)은 이렇게 말했다.

22일 강남구 신사동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대사들이 모두 주옥같이 부담도 있었지만 공감도 많이 했다. 인물을 입체적으로 그려려 노력했다. 이 역할을 하게 된 건 영광”이라고 강조했다.

최무성이 드라마로 언론과의 인터뷰에 나선 것은 2016년 tvN ‘응답하라 1988’ 이후 오랜만이다. ‘녹두꽃’ 속 긴 수업을 남긴 채 나타난 그는 “갑자기 너무 깨끗해지면 어색할까 봐”라고 웃었다.

최무성은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는는 전봉준이 백이현(윤시윤 분)에게 “내가 죽어야 네 형(백이강, 조정석) 같은 의병들이 투지가 더 생긴다”라고 한 것을 꼽으며 “끝까지, 자기 죽을마져 나라가 발전하는 데 썼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상당히 울림이 컸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작품은 보조출연자들도 정말 열연을 했다. 작품의 주인공이 민중, 백성이었듯이”라며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울컥한다”라고 강조했다.

최무성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도 처참한 전투 중에서 전봉준이 수많은 의병 전사자들을 바라보던 모습을 꼽았다. “그 장면을 찍고 나서는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배우 개인으로서 보다 모든 사람이 처참한, 어쩌면 실례라 할 수 있는 그 전투를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녹두꽃’은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최초의 작품이지만, 전봉준을 주인공으로 내세우지 않고 백기네 이복형제 이강과 이현을 극의 중심으로 다뤘다.

최무성은 이에 대해 “늘 주인공들과 함께였기 때문에 서운할 건 없었다”라고 웃으며 “전투 장면에서 지휘를 한다든지, 정치적으로 이끄는 부분 외에 이강, 이현, 자인(한예리)과 만나 대화하는 장면이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했다.

“이강과의 대화에서는 이강이 ‘거시기’에서 더 나은 인간으로 발전하도록 도움을 주는 부분에, 이현과 호흡 때는 이현의 세계관 변화를 이끄는 데, 자인과의 관계에서는 이상주의자와 현실주의자의 긴밀한 대화에 힘을 썼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가르치는 역할처럼만 보이지 않도록 사극이지만 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으로 자주 접한 역사 속 실제 전봉준은 사실 왜소한 체구에 가까운데, 최무성은 전봉준에 캐스팅됐을 당시 키 180cm에 몸무게가 105kg였다고 한다. 작품 중에는 80kg 중반까지 뺐다고.

그는 “제작진에 솔직히 여쭙았다. ‘아무리 살을 빼도 전봉준은 무리이지 않겠느냐’라고. 어깨도 있어서 한복을 입으면 더 거구로 보인다”라며 “지금 생각하면 좀 ‘키 보이네’ 전봉준을 원했다 게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2002년 영화 ‘남자 태어나다’로 데뷔한 그는 이후 ‘악마를 보았다’(2010)를 비롯



해 다양한 영화와 ‘응답하라 1988’ 등 여러 드라마에 출연해 작품마다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특히 아버지(‘응답하라 1988’), 스승(‘미스터 션샤인’), 지도자(‘녹두꽃’) 등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하는 와중에도 늘 묵직한 울림을 줬다는 공통점이 있다.

최무성은 “매번 작품을 할 때마다 이전 캐릭터들과 겹치지 않게 하려 노력한다. 일부러 무게감을 주는 건 아니다. ‘청담동 살아요’(2011~2012) 같은 작품에서는

‘깨방정’ 연기도 했다”라고 웃었다.

그는 “요새는 확실하 어린, 선생님 같은 역할이 많이 들어온다. 가볍고 코믹한 것도 욕심 난다. 일단은 주어진 것에 순응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연기의 가장 중요한 점은 호흡, 소리, 걸음걸이, 대사 처리 등 기본기에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후배 중에서는 ‘녹두꽃’에서 호흡한 조정석을 기본기에 착실한 배우로 꼽으며 애정을 표했다.

“누구도 못 믿겠다”...한석규 ‘왓쳐’ 5% 돌파

OCN 주말극 ‘왓쳐’가 방송 6회 만에 입소문을 타고 시청률 5%를 돌파했다.

22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20분 방송한 ‘왓쳐’ 6회는 5.4% (이하 비지상과 유료가구)를 기록, 자체 최고 성적을 냈다. 순간 최고는 5.9%로 집계됐고, OCN 타깃인 남녀 25-49세 시청률에서도 3.7%로 케이블과 종합편성채널을 포함해 동시간대 1위 자리에 올랐다.

전날 방송에서는 무일 그룹의 뇌물 장부를 수사하던 김영균(서강준 분)과 한태주(김현주)의 의심이 도치광(한석규)을 향하기 시작했다.

특히 오상도(유하준)에게 총을 겨누는 도치광, 생태공원에서 발견된 의문의 시체 데미, 그리고 김재명(안길강)이 오상도를 가위로 찢은 사람이라는 사실은 시청자를 혼란에 빠뜨렸다. 이 과정에서 도를 알 수 없는 도치광의 말투와 행동이

‘모든 사람이 범인 후보’임을 각인시켰다.

김영균, 한태주, 도치광 세 명의 ‘동상 이몽’ 팀플레이는 별다른 액션 없이도 심리 스릴러의 긴장감을 배로 증폭시킨다. 세 명이 각자의 목적을 위해 함께 진실을 찾아가면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장면에서 경우의 수는 더 복잡해졌고 의심의 고리들도 늘어났다.

‘왓쳐’는 ‘남만닥터 김사부’ 이후 오랜만에 돌아온 한석규, 그리고 경찰 내부 감찰이라는 특수한 소재로 초반 시선을 끄는 데 성공했다. 촘촘하게 연결된 이야기 구조상 중간 유입이 어렵다는 단점에도, 잘 짜인 합정과 추리 서사가 입소문을 타며 작품이 안정 궤도에 올랐다.

KBS 2TV 주말극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은 26.8%-32.6%, tvN 주말극 ‘호텔 델루나’는 7.7% 시청률을 보였다. /연합뉴스

핑클, 데뷔 21주년 베스트 앨범... “추억하는 시간”

이달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14년 만에 뭉친 1세대 걸그룹 핑클이 데뷔 21주년을 맞아 베스트 앨범을 발표한다.

1998년 핑클을 데뷔시킨 DSP미디어는 팬들과 추억을 나누고자 8월 19일 ‘핑클 베스트 앨범 (FIN.K.L BEST ALBUM)’을 발매한다고 22일 밝혔다. 베스트 앨범에 신곡이 수록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음반이 나오기는 2005년 10월 ‘포에버 핑클 (Forever Fin.K.L)’ 이후 14년 만이다.

이번 앨범은 다수 히트곡으로 사랑받은 핑클의 대표곡으로 구성됐다.

데뷔곡 ‘블루 레인 (BLUE RAIN)’을 비롯해 ‘내 남자 친구에게’, ‘루비(淚悲):(슬픈 눈물)’, ‘영원한 사랑’, ‘화이트 (White)’, ‘영원’ 등 10곡이 수록됐다.

멤버들은 “추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팬들도 좋아할 것 같다”며 팬들에게 보내는 자필 메시지를 앨범에 수록했다. /연합뉴스



DSP미디어는 “핑클을 사랑해준 팬들에게 추억을 선물하고 그때 감성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자 베스트 앨범을 기획했다”며 “소장의 기쁨을 위해 LP와 CD로 구성된 패키지로 제작했다”고 소개했다. 이호리, 옥주현, 이진, 성유리로 구성된 핑클은 이달 JTBC 예능 프로그램 ‘캠핑클럽’을 통해 완전체로 뭉쳐 화제가 됐다.

이들은 이 프로그램에서 캠핑을 직접 몰고 전국 방방곡곡을 여행하면서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던 마음을 나누고, 이후 데뷔 21주년 기념 무대에 설치 결정하게 된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 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휴스턴 국제영화제 수상작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모두 다 콩따리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수상한 창모
9	30 KBS 뉴스	00 여름이 부탁해(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검법남녀 시즌2(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퍼퓸(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55 살릴하는 남자들(재)	00 12 MBC 뉴스 20 FINA 광주세계수영선수권 <하이다이빙 여자 결승>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토크쇼-교육시리즈 55 K트롯 서바이벌 골든마이크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거북이 뇌우스 50 우리말 겨루기		20 UHD 특선 다큐 애니멀 센스 50 2시 뉴스 외전	
2	40 팔도방송 스페셜 50 UHD 숲터(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00 가요무대 스페셜(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뽀뽀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55 뽀뽀뽀 모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0 모두 다 콩따리(재)	00 고향견문록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다큐멘터리 3일(재)	00 5 MBC 뉴스 25 경성판타지(재)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영재발굴단(재)
7	00 KBS 뉴스 7 40 전라도 매력청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폼지력
8	30 여름이 부탁해	30 글로벌24 55 특별TV2 덕화디방	55 검법남녀 시즌2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1~2부
9	00 KBS 뉴스 9			
10	00 뉴욕 TV, 필름 페스티벌 수상작 KBS 스페셜	00 퍼퓸	05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00 여름특집 불타는 청춘 1~2부
11	00 여름방학 스페셜 대화의 회열 40 UHD 숲터 45 다크세상	10 지식채널E 프로젝트 배짱이	05 FINA 광주세계수영선수권 하이라이트	
12	35 KBS 뉴스 45 KBS 결착 다큐멘터리(재)	05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재)	00 100분 토론	00 나이트 라인 30 2019 중흥 S-클래스 고교동문 골프대회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명탐정 피트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페파 피그(재)
06:0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7:45 마사와 곰(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12:10 미래교육 플러스	18:00 생방송 특목! 보니 히니1~5
07:00 로보카 폴리	13:00 다크 오늘	19:00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07:15 꼬마버스 타요	13:10 최고의 요리비결	19:30 생방송 판다다
07:30 뽀뽀뽀 뽀로로	13:40 사건 브리핑 - 안전상황실	20:00 갤럭시 프로젝트
07:45 페파 피그	14:30 꼬마버스 타요(재)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땡땡땡 유치원1~2	15:00 출동! 파자마 삼총사	<여름이니까 몽골,바이칼 2부 안녕 자브랑은 처음이지?>
08:30 몬카트	15:30 뽀뽀뽀 뽀로로(재)	21:30 한국기행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45 출동! 슈퍼원스(재)	<여름 김치를 아시나요? 2부>
09:00 마사와 곰	16:0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21:50 EBS 다크큐브
09:30 원더볼스	16:15 세미와 매직큐브	22:45 건축탐구 - 집
09:40 극한직업 스페셜	16:30 땡땡땡 유치원1~2	23:55 미래교육 플러스
10:30 한국기행	17:00 EBS 뉴스	

7월 23일(음 6월 21일 辛酉)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23일(음 6월 21일 辛酉)
<p>子 36년생 서두르면 손해 보는 일이 많을 것이다. 48년생 제대로 능력을 발휘한다면 고두보가 형성 된다. 60년생 가변적인 상황에 맞춰서 진행하자. 72년생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태이다. 84년생 영향력이 커지면서 연쇄적인 탄력을 받는다. 행운의 숫자 : 28, 45</p>	<p>午 42년생 지금 즉시 바로 잡아두어야 뒤달이 없으리라. 54년생 잠시 중단한 후에 면밀하게 판단하라. 66년생 미동도 하지 않을 것이니 아예 포기함이 낫겠다. 78년생 화는 많고 길조는 적으니 변동을 꾀하지 말라. 90년생 근소한 차이가 천지간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9, 44</p>
<p>丑 37년생 신경 썼을 때 제 값을 할 것이다. 49년생 일관된 마음으로 지속되어야 의미를 찾을 수 있다. 61년생 안전을 도모한다면 대고를 면할 수 있다. 73년생 자체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알라. 85년생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회를 잡는 기쁨이 있다. 행운의 숫자 : 18, 42</p>	<p>未 43년생 주어진 여건을 잘 살펴보고 보완해 나간다면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55년생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67년생 자기감각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79년생 용기가 있어야 한다. 91년생 지속적인 노력이 일관되어야 성취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4, 50</p>
<p>寅 38년생 받아들이는 것이 나은 것이다. 50년생 부수적인 일은 보류하고 주된 일을 도모해야 한다. 62년생 사실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대응하라. 74년생 갈수록 그 의미가 희석되어질 것이다. 86년생 아무런 의미도 없으니 가볍게 넘어가도 된다. 행운의 숫자 : 45, 77</p>	<p>申 44년생 하찮게 여겨왔던 것 속에서 기회의 열쇠가 있다. 56년생 살펴보면 전혀 다른 형상이 보이리라. 68년생 단순한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생경한 관계가 될 수도 있느니라. 80년생 고귀함을 이루는 마당이 펼쳐질 수 있다. 92년생 절제가 꼭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37, 08</p>
<p>卯 39년생 변동 사항이 생기나 차질을 주지는 못 한다. 51년생 상대의 기대 심리를 저버리지 말라. 63년생 단순한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오해할 수 있다. 75년생 잘 다루지 않으면 오히려 부담을 안게 된다. 87년생 파악하지 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행운의 숫자 : 88, 28</p>	<p>酉 45년생 시종일관하자. 57년생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야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 69년생 이미 짜인 구도이니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으리라. 81년생 진행 방향은 다르지만 결과에는 차이가 없다. 93년생 더 좋은 조건으로 변경되는 판세로다. 행운의 숫자 : 52, 03</p>
<p>辰 40년생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내에서 임하자. 52년생 선택을 잘못하면 역전 될 수 있다. 64년생 재고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 76년생 큰 코 다칠 수도 있느니라. 88년생 마음만 먹고 있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실행에 착수해야 하리라. 행운의 숫자 : 54, 40</p>	<p>戌 34년생 인재를 인한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느니라. 46년생 가능성이 높다. 58년생 한계를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말썽의 소지가 크다. 70년생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 판단은 보류하는 것이 유용하다. 82년생 먼 장래를 생각하면서 넓고 크게 보자. 행운의 숫자 : 85, 86</p>
<p>巳 41년생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최상책이리라. 53년생 처음부터 점검해야겠다. 65년생 쉽게 융통할 수 있게 되면서 요건에 일조한다. 77년생 유연이나 천연의 혜택을 입을 수도 있다. 89년생 잠깐의 휴식이 더 많은 수확이 가능하게 하리라. 행운의 숫자 : 16, 13</p>	<p>亥 35년생 새로운 면모를 도모하게 된다. 47년생 최선을 다한다면 많은 실적을 낼 수 있다. 59년생 남에게 맡기지 말고 직접 다루어야 할 문제다. 71년생 일한 계획이 실현될 성과를 도모하라. 83년생 노출하지 않고도 열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0, 38</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